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2019. 5. 3. / (총 10매)			
배 포 일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과 장	조 은 희	전 화	043-719-7160
	담당자	박 숙 경		043-719-7162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	과 장	조 신 형		043-719-8520
	담당자	이 욱 교		043-719-8562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과 장	조 광 희		041-635-2640
	담당자	이 현 기		041-635-4293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 ◇ 5월 2일 충남 지역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확인
- ◇ 올해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결과 충남, 강원, 제주 순으로 밀도가 높음(2019. 4.30기준)
- ◇ SFTS 예방의 최선은 진드기 물림 예방수칙 철저 준수
- ◇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충남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충남에 거주하는 H씨(여자, 만 55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텃밭을 가꾸는 등 야외 활동을 하였고, 4월 28일 발열, 홍반 등 증상이 나타나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 866명(사망자 174명)이 확인되었다. (붙임1, 2 참조)

* 환자수 : 36명('13)→55명('14)→79명('15)→165명('16)→272명('17)→259명('18, 잠정통계)

* 사망자수 : 17명('13)→16명('14)→21명('15)→19명('16)→54명('17)→47명('18, 잠정통계)



작은소피참진드기

암컷, 수컷, 약충, 유충 순서(눈금한칸: 1mm)



머리에 붙어 흡혈하고 있는

작은소피참진드기

<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

○ '19년 4월 현재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결과, 참진드기 지수(T.I.)*가 54.4로 전년 동기간(35.8) 대비 51.7%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 충남(178.3), 강원(97.9), 제주(57.3) 순으로 높았다. (붙임3 참조)

* 참진드기 지수(Trap Index, T.I.) = 전체 참진드기 개체수/채집기수

□ SFTS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 흡혈을 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약충은 4-6월, 성충은 6-8월에 높은 밀도로 채집

○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의료인들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SFTS 진단에 유의해줄 것과 진료 과정에서의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SFTS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체계 및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전국 보건소를 통한 지역 주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피해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 <붙임> 1. SFTS 개요
2. SFTS 발생 현황
3.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 현황
4. SFTS 관련 Q&A
5. SFTS 예방 홍보 포스터

붙임 1

SFTS 개요

구 분	내 용
정 의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열성 바이러스 질환
질병 분류	▫ 제4군 법정감염병 (* ICD-10 A98)
병원체	SFTS 바이러스(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 Bunyaviridae family)
매개체	▫ 주요 매개체 : 작은소피참진드기(<i>Haemaphysalis longicornis</i>) 그 외에도 개피참진드기(<i>Hamaphysalis flava</i>), 뭇뚝참진드기(<i>Amblyomma testudinarium</i>), 일본참진드기(<i>Ixodes nipponensis</i>) 등
감염경로	▫ 주로 SFTS viru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 사람 간 전파 -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
잠복기	4~15일
호발시기	4월~11월
호발대상	주로 50대 이상
임상증상	▫ 주증상은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주요 검사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진 단	▫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치명률	12~47% 정도 (2013~2017년 기준 20.9%)
치 료	▫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환자 관리	▫ 환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 단,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 :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 접촉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예 방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돛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 주의

붙임 2 SFTS 발생현황

1. 연도별·월별 환자 발생현황/사망자수

연도	월별 환자 발생수													사망 자수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66	0	1	0	8	62	117	149	122	151	240	16	0	174
2013	36	0	0	0	0	7	4	10	6	2	5	2	0	17
2014	55	0	0	0	1	2	7	11	9	11	12	2	0	16
2015	79	0	0	0	0	7	10	16	13	16	15	2	0	21
2016	165	0	1	0	3	10	13	18	18	34	62	6	0	19
2017	272	0	0	0	0	15	34	45	47	49	79	3	0	54
2018*	259	0	0	0	4	21	49	49	29	39	67	1	0	47

2. 연령별 환자 발생수

연도	연령별 환자 발생수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866	0	5	17	15	48	182	228	371
2013	36	0	0	1	0	1	6	11	17
2014	55	0	0	4	1	4	12	14	20
2015	79	0	2	4	3	5	11	17	37
2016	165	0	0	3	2	10	38	41	71
2017	272	0	2	2	5	10	65	77	111
2018*	259	0	1	3	4	18	50	68	115

3. 시도별 환자 발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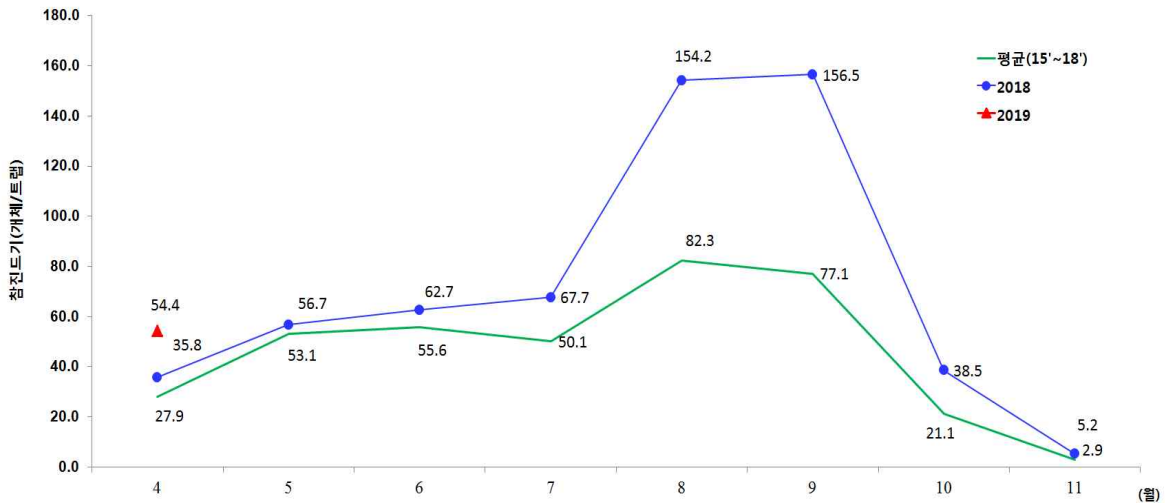
연도	시도별 환자 발생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866	44	9	23	13	3	12	15	146	125	37	70	28	58	136	79	66	2
2013	36	0	1	5	1	0	0	2	0	3	0	2	0	5	6	5	6	0
2014	55	5	0	1	0	0	0	0	8	4	2	2	0	1	19	5	7	1
2015	79	0	0	5	4	0	2	2	7	15	0	5	2	9	9	10	9	0
2016	165	16	1	4	3	1	2	0	28	29	11	9	3	9	25	15	8	1
2017	272	9	3	5	4	2	4	4	56	39	12	30	10	18	39	16	21	0
2018*	259	14	4	3	1	0	4	7	47	35	12	22	13	16	38	28	15	0

* 2018년은 잠정통계

붙임 3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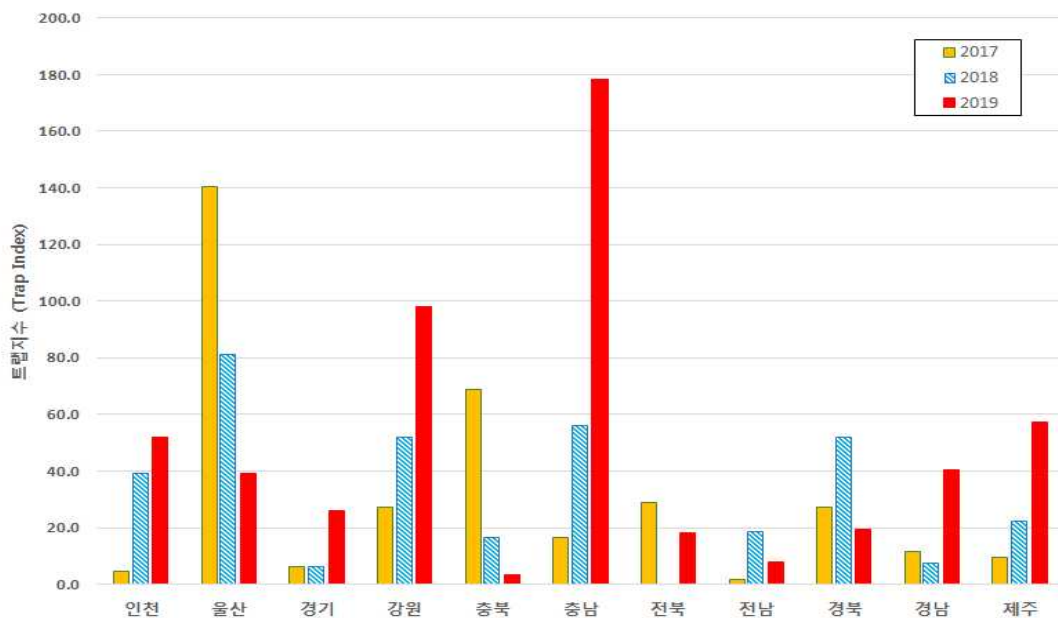
□ SFTS 매개 참진드기 월간 감시 현황 (2019년 4월 현재)

- 참진드기 지수(T.I.)*가 54.4으로 4년 평균(2015~2018) 동기간(27.9) 대비 94.5% 높은 수준이며, 전년(2018) 동기간(35.8) 대비 51.7% 높은 수준임



* 참진드기 지수(Trap Index, T.I.) = 전체 참진드기 개체수/채집기수

- 지역별로는 충남(178.3), 강원(97.9), 제주(57.3) 순으로 참진드기 밀도가 높았으며, 충남 지역은 전년(2018) 동기간(56.0) 대비 218.4% 높은 수준임



붙임 4

SFTS 관련 Q&A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뒤 6-14일(잠복기) 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수주 간) 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환자와 접촉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공기나 비말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를 때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혈액접촉감염예방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 5 SFTS 예방 홍보 포스터

http://www.cdc.go.kr
http://is.cdc.go.kr

예방수칙 (5)

1



간헐, 긴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매고
바지는 양말 속으로 넣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야외활동 시 진드기를 주의하세요!!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릴 경우

- 고열
-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
- 혈소판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2



야외활동 및 작업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합니다.

3



물밭 위에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탁하여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합니다.

4



외출 후 옷은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5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SFTS 예방의 최선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